

# WOMAN LIFE

2009

7

[www.womanlife21.co.kr](http://www.womanlife21.co.kr)



“고객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한다”

그랜드챔피언 10연패 달성 노하우 책으로 낸

삼성생명 예영숙 명예전무

美 베스트셀러 작가 된 고려인 스베틀라나 김

한인 최초 JP모간 중역 지낸 안경희

한국 추리소설의 대부, 작가 김성종

외환은행 최명희 부행장

올 여름 인기 바캉스 오토캠핑

초록빛 매운맛, 고추냉이 요리

언니가 있어 사춘기는 행복했어, 순정만화가 이미라  
호반의 도시 춘천 기행  
모스크바의 체호프 국제 연극 페스티벌

“나에겐 꿈이 있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그 꿈 말입니다”

소설 <White pearl & I>로 美 베스트셀러 작가된 러시아 출신 한인 4세 스베틀라나 김



구 소련이 붕괴된 직후인 1991년 레닌그라드, 23살의 스베틀라나 김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전 재산인 1달러를 들고 뉴욕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영어 한 마디 할 줄 모른 채 시작된 낯선 미국생활. 뉴욕에서 우연히 미 서부로 가는 버스 티켓을 얻어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한 그녀는 청소부와 화장품 판매원, 가게 점원 등을 거쳐 18년 뒤 성공한 주식중개인과 3개 국어를 구사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변신한다. 스베틀라나 김의 저서 <White pearl & I>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한인 이주민의 땀과 눈물의 성공담이자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에서 살아남은, 강인한 고려인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다.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태권도의 대부 Jhoon Rhee와 함께

### 꿈을 위해서라면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간 전국으로 책 홍보와 강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근황은 어떠신가요?

“지난 6월 24일 ‘유로 아메리칸 여성 협회(The Euro American Women's Council)’에서 주최하는 ‘아르테미스 상(Artemis award)’을 수상하기 위해 그리스 아테네에 다녀 왔습니다. 아르테미스 상은 경제, 정치, 문화, 학술, 예술 분야에 걸쳐 사회 발전에 공헌을 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국제적인 상으로 저는 <White pearl & I>의 저자로서 예술 분야에 지명 되었어요.”

### 간략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려인 4세로 1991년 12월 미국 뉴욕에 왔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작가이자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당 상원의원 캠페인 위원회와 아시아 리더 협회, 워싱턴 DC 주니어 리그, AARP 여성 리더 서클 등 많은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행동가(activist)로도 활동하고 있지요.”

당신의 베스트셀러 <백옥과 나(White pearl & I)>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첫 번째 테마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저의 아메리칸 드림에 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테마는 나의 할머니인 ‘백옥(White pearl)’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할머니는 1900년대에 기근을 피해 한국에서 러시아로 이주했던 까레이스키(고려인)로,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 한 사람입니다.(편집자註-러일전쟁 이후 스탈린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이 일본인들의 첨자가 될 것을 우려, 1937년부터 39년까지 이들을 사막과 황무지뿐인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당시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으로 수많은 고려인들이 죽었고, 그 후에도 한국말 사용을 금지당하는 등 많은 시련을 겪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끔찍한 고통을 당했지만 까레이스키는 유대인과 같은 개인한 생존력으로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소수 민족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민족으로 변성할 수 있었습니다.”

### 모든 사람은 희망을 가질 권리가 있다

책을 쓰게 된 동기와 작업과정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5년간의 사전준비와 6개월간의 자료조사를 통해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세 번씩 서점에 들러 지금 어떤 책이 나왔는지, 사람들이 어떤 책을 원하는지, 나의 잠재적인 독자들은 누가 될 것인지, 또 독자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끊임없이 연구했어요. 저는 책을 쓰는 일 또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한 마케팅 전략의 바탕 위에 저의 이야기를 독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18년 전 영어 한 마디 할 줄 모르던 제가 영어로 된 소설을 떠내다니, 과연 믿으실 수 있겠어요?(편집자註-실제 그녀는 공동저자나 번역가의 도움 없이 그녀 스스로 작품을 완성했다) 이 책은 미국 이주민과 고려인들 뿐 아니라 용기와 꿈을 가진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현정되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저는 러시아와 고려인 문화에 생소한 이들을 위해 주석을 달았는데, 예를 들어 ‘거주허가’를 뜻하는 ‘쁘로뻬스까(propiska)’ 같은 제도에 대해 짧은 설명글을 첨부하는 식으로 일반 독자들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책을 접한 독자들은 오히려 (책 속에 등장한) 러시아 음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더군요.(웃음) 그 후 미국의 음식문화 시장이 아주 거대하다는 사실을 뒤늦게에서야 알게 됐어요.(웃음)”

책을 통해 말씀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목표를 향해 집중하고 조금씩 추진해나가면 성공도 조금씩 나에게 다가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소설 중 어떤 부분이 허구이고, 어떤 부분이 진실인가요?

“제 첫 번째 저서 <White pearl & I>는 100% 진실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독자들이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단지 소설의 형식을 취한 것뿐이죠. ‘현실의 여성에 관한 흔치 않은 이야기(Unusual story about real woman)’ 라 할 수 있습니다.(웃음)”



▲ 영국 항공사 버진 그룹의 회장인 리차드 브랜슨 경과

◀ 그리스 버냉키 뮤지엄 관장인 Lila de Chaves(레드 의상)와 前 그리스 외교통상부 장관인 Doukas Petros(기큰 남자), 이슬람 국제 기업의 매니저인 Samir Saabun과 함께 지난 6월 아테네에서 아르테미스상을 수상하고

###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무엇을 느꼈으면 했나요?

“모든 이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 또 우리 스스로 타인을 존중해야 함을 느끼길 원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미국은 이민자들로 형성된 국가라는 것을. 오늘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연히 그곳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히스페닉계 노동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한때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현재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는 그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이 어떤 위치의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제 책을 통해)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비웃을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일깨우고 싶었습니다.”

###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 되고파

당신의 아메리칸 드림은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마치 한편의 꿈처럼 여겨집니다.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말 그대로 ‘드라마처럼’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인생 밀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 화장품 판매사원, 가게점원 등으로 일하면서 저녁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 자격(Financial service degree) 과정을 공부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 생활에서 탈출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렸고, 그 후 주식증개인이 되어 성공을 거머쥘 수 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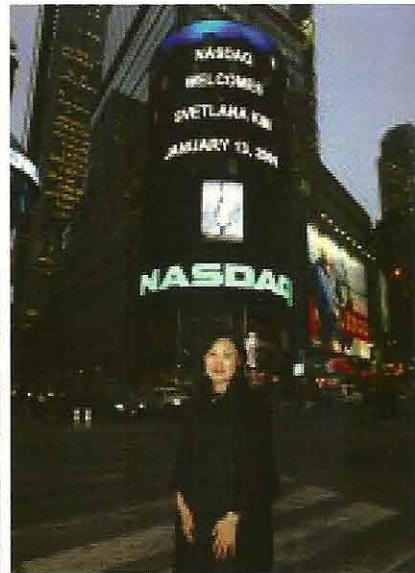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지지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처럼(편집자註-스베틀라나는 러시아어로 빛이라는 뜻)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싶습니다.”

### 미국을 당신의 두 번째 고향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수많은 다민족이 모여 사는 ‘문화의 도가니(melting pot)’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려있는 곳이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저는 이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꿈은 반드시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할 거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이곳에 와서야 미국의 위대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1달러만 가진 러시아 이주민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우먼이 될 수 있었나요? 당신이 가진 특별한 비결이 있었다면요?

“사랑하고 집중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법입니다. 또한 저는 성공을 위해 기꺼이 변화될 준비가 돼 있었어요. 1달러만 들고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미친 짓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다음에 오는 기회는 우리의 삶을 더욱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 친구 레지나 미드와 힐러리 로덴 클린턴과 함께, 워싱턴 D.C.

### 가끔 당신이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나요?

“물론입니다. 자신의 혈통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언제나 한국의 문화와 뿌리를 마음 속 깊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불황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당신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경제공황 사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 자세와 뭐든지 이겨내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좀 더 용기를 내셨으면 합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5가지 교훈에 관한 두 번째 소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향수와 의류 등의 품목으로 ‘스베틀라나 김 컬렉션(Svetlana Kim Collection)’을 런칭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비공개에 부치고 있어 밝히기가 어려우니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글 태윤희 기자 / 사진제공 BookSurge

### 스베틀라나 김이 말하는 성공을 위한 조언

1. 6가지의 피부를 가져라 (Have 6 skins) ‘정치적으로 올바른(Politically correct)’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더욱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인종에 대한 내 안의 편견부터 종식시켜야 한다.

2. 긍정적이 되라 (Be positive) 긍정의 힘은 삶을 변화시킨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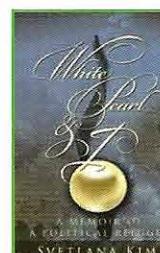
3. 행동하라 (Execute today)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오늘 행동하라!

4.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라 (Set the clear goal) ‘5년 안에 책 3권을 쓰겠다’와 같은 추상적인 목표는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날짜와 콘셉트, 독자층 등 보다 현실적인 계획 아래 목표를 추진하라.

5.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분석하라 (Analyze your pros & cons) 빈 노트에 당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적어보라. 자신의 장, 단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은 더욱 쉽다.

6.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워보라 (Learn one thing everyday) 현재에 머무르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라.

스베틀라나 김 홈페이지 [www.svetlanakim.com](http://www.svetlanakim.com)



애독자 엽서에 “백옥과 나”를 써서 보내주세요.  
주첨을 통해 총 5분께 스베틀라나 김 씨의 소설  
〈White pearl & I〉 오리지널 영문판을 드립니다.